

舞動儒風

고려와 제전

유가 전통의 재현과 체험

공자묘 둘러보기

개방시간

화요일~토요일 08:30~21:00

일요일 및 공휴일 08:30~17:00

(월요일 휴관)

주소: 타이베이시 공자묘 (타이베이시 다둥구 다룽제 275호)

臺北市大同區大龍街275號

타이베이시 공자묘관리위원회 : <https://www.tctcc.taipei/>

연락처 : 886-2-25923934



주최 부서 : 타이베이시정부

개최 부서 : 타이베이시정부 민정국, 타이베이시 공자묘관리위원회

臺北市孔廟
Taipei Confucius Temple



廣告
109.3/8.000

공자묘 둘러보기

남송의 유학자 주희 선생은 “이 세상에 중니(仲尼)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만고의 지나간 세월은 칠혹같은 밤이었을 것이다”라며 공부자를 칭송했다.

중국 춘추 시대의 혼란기에 질서가 붕괴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원전 497년 당시 55세였던 공부자는 그의 제자인 자로(子路), 자유(子有), 자연(子淵) 등과 함께 조용히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지식에 눈을 뜰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공부자는 14년 간 당시의 위(衛), 조(曹), 송(宋), 정(鄭), 진(陳), 제(蔡) 등 6개 나라를 두루 돌며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유교무류(有教無類)의 교육 정신으로써 지식의 보급과 깊이를 주장하며 위로는 중국의 2500년의 문화적 도통(道統)을 잇고, 아래로는 이후 2500년 동안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진 유학문화권의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지식은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힘은 2000여 년 지난 오늘날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묘(宗廟)는 중국의 법통과 예법과 지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휘다. 또한 선현(先賢)에 대한 후세의 숭경과 문화적 특색을 포함하고 있다. 북남향의 타이베이시 공자묘는 4개의 문을 지나는 사진(四進) 형식과 2개의 결채 형식의 호룡(護龍)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며 취푸(曲阜) 공자묘를 참고하고 민남식 건축 양식을 융합한 건축물이다. 황贊鈞(黃贊鈞), 천페이건(陳培根), 구셴룽(辜顯榮) 등 타이베이 지역 인사들이 1925년(민국14년)에 상의해 발기한 뒤 정부 관료, 기업계 인사 등 200여 명과 함께 자금을 출연해 공사를 시작했다. 1930년(민국19년)에는 30여 년간 중단됐던 공부자 제례인 제공대전(祭孔大典)을 부활했으며, 14년 만인 1939년에 모두 준공되었다.

‘요순 임금의 업적을 기술하고 문무 제도를 세웠던’ 공부자는 중국 고대 학술 사상의 집대성자이다. 공자묘를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산처럼 높으신 덕을 숭경하고 높은 덕행을 본받겠다’는 사모의 마음을 품게 된다. 공부자를 배알하면서 유학 문화의 축복도 함께 받아 보시지요!



1

만인궁장(萬仞宮牆)
하늘만큼 높을지니

논어(論語) 제 19장인 자장(子張) 편에 보면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공부자의 담장은 몇 길이나 되어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움도 백관(百官)의 부유함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문을 찾아 들어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타이베이시 공자묘를 둘러보시려면 공부자 77대 손인 궁덕청(孔德成) 선생이 직접 휘호하신 만인궁장(萬仞宮牆)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2

반궁(泮宮)과 횡문(黌門)으로 들어감은
예의를 따름이니

고례(古禮)에 의하면, 천자(天子) 나라의 최고 학제인 태학(太學)에는 중앙에는 사면이 물로 둘러 싸여 있는 학궁(學宮)이 있는데, 이를하여 벽용(辟雍)이라고 불렀다. 제후국의 학교에는 남면에만 반수(泮水)가 있어 반궁(泮宮, 동쪽 문)이라고 불렀다. 횡문(서쪽 문)은 바로 고대의 학교를 뜻한다. 제비 꼬리가 치켜 올라간 듯한 모습의 용마루를 갖춘 이 겹쳐진 형식의 문루(門樓)를 들어서는 것은 바로 유가의 학당을 들어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공부자의 사상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공자묘는 평소에는 정중앙의 대문(大門)을 개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묘는 예문(禮門, 서쪽 문) 혹은 의로(義路, 동쪽 문)로만 들어간다. 이는 또한 유학의 첫 수업은 바로 ‘예를 지키고 의를 따르다’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3

벽 속의 기린, 반지(泮池)를 벗하며

만인궁장(萬仞宮牆)의 뒷편은 채색 도안의 기린 그림이 있는 가림벽이다. 전설에 따르면 공부자가 태어나셨을 때 기린이 공부자택의 정원에 뛰어들어와 옥서(玉書)를 토해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 이후 총명한 아이를 기린아(麒麟兒)라고 부른다. 기린은 또한 어진 집승이란 뜻의 인수(仁獸)라 불리는데, 네 개의 발은 각각 풍부한 지혜와 고매한 예절을 상징하는 서책, 재물과 복을 받는다는 호리병박, 성공적인 출세를 상징하는 관인(官印)과 만사형통을 상징하는 여의(如意) 등의 길조와 복을 가져다 주는 네 가지 보물을 밟고 있다. 가림 벽(照壁)도 또한 민남식 건축의 특색 중 하나로 반사되는 해, 달, 별 등의 빛을 흡수하는 건축학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반지(泮池)는 공자묘 특유의 건축적 용어이다. 반궁(泮宮)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가운데에 아치형 석교가 가로 놓여져 있는데, 이를 반교(泮橋) 혹은 장원교라 한다. 돌로 대나무 마디를 조각해 난간으로 삼고, 붓머리 형태로 장식한 이 반교는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갖춰를 뿐 아니라 높은 절개와 문운이 흥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밖에 제해 방지와 더위 조절 기능 및 풍수학적 의미도 담겨 있다.



4

문운의 별 영성(樞星)이 속세로 내려오니, 잉어가 용문에 들어 하늘로 오르네



영성(樞星)은 하늘의 문운성(文運星)이다. 공부자에게 제사를 올릴 때 반교(泮橋)에 올라, 청운로(靑雲路)를 따라 걷고, 영성문(樞星門)을 지나고 의문(儀門)을 거치면 바로 대성전(大成殿)에 다다라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진사시에 급제한 장원만이 가능했다. 타이베이시 공자묘의 영성문은 겹처마의 현산정 지붕 형식으로 전당(殿堂)의 느낌을 주며 휘주(曲阜)의 공자묘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역술(易術)에 있어 숫자 9는 가장 큰 양수(陽數)이고, 108은 가장 존귀한 숫자이다. 영성문 문짝에는 채화(彩繪) 문신(門神)이 없는 대신 108개의 돌출된 문정(門釘)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옛 제도를 따라 제작한 문짝 제작 기법으로 공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또한 108개의 별자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바로 36천강(天罡, 북두칠성)과 72지살(地煞, 악귀)의 숫자와 일치한다. 이들은 도교(道敎)의 문신(門神)의 일종으로, 문을 들어선 후 정면 대들보에 낙서(落書)의 팔괘를 그려 넣은 것 등도 모두 요괴와 악귀를 물리치고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공부자 앞에서는 학문을 감히 논하지 않기 때문에 문에는 대련(對聯)이 없다. 그리고 영성문 중문의 좌우에 한 쌍의 포고석(抱鼓石)이 있는데, 그 모습은 용의 아홉 아들 중 수중급과 내향적인 성격의 막내 아들 초도(椒圖)가 조용히 문 입구에 쪼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뜻인즉슨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포고석은 문을 열고 닫을 시의 반작용의 힘을 완충시켜 문설주가 헐거워짐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한다.

입구에 취안저우(泉州) 백석으로 조각된 4개의 발톱을 가지고 몸을 서리고 있는 용을 조각한 돌기둥이 있다. 몸을 휘감아 올라가는 모습이 정교하고 수준 높은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용의 부리는 뒷쪽의 코와 공기가 통할 수 있는데, 사실적 느낌을 더해준다. 용기둥에 꽃과 새의 소재 등으로 간결히 장식했는데, 이는 공자묘의 문화적 고아함을 드러낸다.

좌·우측 창문인 선문(扇門)의 남쪽 지대 위에 있는 교지도기(交趾蹄, 교지야기) 또한 공자묘의 또다른 민남적 특색이다. 동쪽의 용문 쪽에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는 일화'의 작품이 있고, 서쪽의 호문 쪽에는 '공자가 7세 향탁(項鑿)을 스승으로 삼았던 일화'의 작품으로, 이들 모두는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5

금성(金聲)과 옥진(玉振)의 뜻을 되새겨 길경(吉慶)을 비니, 나날이 좋은 날이로세



의문(儀門)은 대성전 앞에 있으며 대성문(大成門)이라고도 칭한다. 영성문(樞星門)과 같이 공자에 대한 숭경을 표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닫아 놓다가 제전(祭典) 시에만 문을 개방한다. 용문 쪽은 금성문(金聲門)이고 호문 쪽은 옥진문(玉振門)으로 평소 출입 시 사용한다.

용문 쪽에는 장수 한 명이 오른손에 창과 깃발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경쇠를 들고 있는 '길상과 경사'를 뜻하는 교지도기 작품이 있다. 그 밖에 사시사철 평안함을 상징하는 봄의 모란꽃과 겨울의 동백꽃이 있다. 호문 쪽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장수가 오른손에는 깃발을 들고 왼손에는 공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어의 '소원을 빌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같으며 여름의 연꽃과 가을의 국화 그림도 있다. 문에는 8마리의 이룡(螭龍)이 쌍을 이뤄 서리고 있는 향로의 도형이 있는데, 조각선이 유려하며, 거침없이 단숨에 이뤄진 조형미와 정교한 조각 기술은 이 걸출한 이룡위루(螭龍圍爐) 목조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이는 또한 길함과 소원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다.

의문(儀門)을 들어서면, 양쪽 문 옆에 석전제를 위한 악기인 용종(鑼鐘)과 진고(筓鼓)가 놓여 있다. 종과 북을 함께 울려 길함과 경사로움을 소원하느니! 두루두루 길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며 일년내내 평안하기를!



6

선조를 받들고 후세의 길을 열었던 5000년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집대성



대성전(大成殿)은 공자묘의 주전(主殿)으로 송 휘종(徽宗) 조길(趙佶)이 공부자를 '선대의 성인과 현자의 학문을 집대성했다'라고 칭송하며 '대성전'이라는 조서를 내렸다. 대성전은 웅장한 기세의 겹처마 현산식 지붕으로, 전각 용마루 중앙에 악귀를 물리쳐 보호한다는 의미의 7층 보탑(寶塔)이 있고, 좌우 양쪽에는 자라의 등 위에 우뚝 서 있는 통천통(通天筒)이 있다. 통천통의 몸통에 있는 용의 모습은 '덕은 하늘에 미치고, 이치는 고금의 으뜸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아래로 늘어선 용마루 부분인 규대(規帶) 위에는 감화를 받아 유순해진 사나운 72마리의 효조(梟鳥)들이 있는데, 이는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정신,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가르친다'라는 인제시교(因材施教)의 위대한 교육적 업적을 상징한다. 이 둘 모두는 공자묘 특유의 건축 장식이다. 처마 위에는 화계 방지용의 치문(鴟吻)을 표현한 전점(剪黏) 작품과 권초(捲草) 문양의 점도 조소가 있는데, 이 또한 타이베이시 공자묘의 또다른 뛰어난 건축 공예 작품이다.

질박한 석재로 만든 정원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대성전(大成殿)은 4면이 회랑으로 된 독립 전각 형태이다. 회랑에는 42개의 간결한 조각선으로 조각되고 특별한 장식이 없는 취안저우(泉州) 백석 기둥이 있는데, 공부자의 질박하고 소탈한 개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 수량 또한 타이완 전체에서 으뜸이다. 대성전 앞에서 공부자에게 제사를 봉행할 때 악기를 배치하고 일생(佾生)들이 일무(佾舞)를 추도록 마련된 단서(丹墀)의 앞쪽 어로(御路)에는 운룡(雲龍)이 웅크리고 앉아 한 발로는 여의주를, 한 발로는 도장을 잡고 있는데, 용의 머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금을 내려다보는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하는데, 매우 높은 예술적 수준을 자랑한다.

대성전 정중앙에는 지성선사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신감(神龕)이 있는데, 상인방(上引枋)에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로 된 장제사 전 총통께서 휘호하신 유교무류(有敎無類)의 편액이 있고, 중방(中枋)에는 2008년 마잉주(馬英九) 현 총통께서 하사하신 '도관덕명(道貫德明)의 편액이 걸려 있다. 좌우 신감에는 4배(四配, 복성공[復聖] 안자[顔子], 술성공[述聖] 자사자[子思子], 종성공[宗聖] 중자[曾子], 아성공[亞聖] 맹자[孟子]와 12철(十二哲, 민손[閔損], 엄옹[冉雍], 단목사[端木賜], 중유[仲由], 복상[卜商], 유약[有若], 염경[冉耕], 제여[宰予], 엄구[冉求], 언언[言偃], 전손사[顓孫師], 주희[朱熹]) 등의 위패를 봉사하고 있다.

대성전 안 전정에는 팔각형 장식 천정이 있는데, 총 24개의 두공(斗拱)이 중앙을 향해 집중되어 있고, 두공을 4층 더 올린 후, 다시 16개의 두공으로 줄여서 점차적으로 꼭대기 중심으로 모아지도록 만들었는데, 방사형 문양으로 대단히 아름답다. 장식 천정 네 개의 모서리에는 4마리의 박쥐 장식이 있는데, '복을 내려준다'의 뜻을 갖고 있다.



7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그리고 홍도사(弘道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서로 대칭형으로, 지붕은 비교적 낮은 마치 옛날 주택 건물의 호실(護室) 혹은 곁채와 비슷하다. 대성전, 의문과 더불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자묘의 핵심이다. 실내의 들보 조각은 소박하며, 회랑에는 기념 글귀도 대련도 없는 돌기둥들이 일렬로 늘어선 있는데, 강한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회랑 기둥의 두공 장식은 이룡(螭龍) 도안으로,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조형의 미와 함께 중국 남방식 건축 공예의 뛰어난 미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신감(神龕)에는 공부자의 걸출한 제자와 역대 유학 발전에 공이 있는 선유 선현(先儒先賢) 총 154위를 모시고 있다.

여로부터 학문적 열풍이 드높았던 다룡통(大龍峒)은 '열 집 건너 진사와 급제생 한 명, 다섯 집 건너 생원 한 명'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천웨이잉(陳維英) 선생은 1851년 당시 타이완 도(臺灣道)의 지방관 쉬종간(徐宗幹)에 의해 효렴방정(孝廉方正)으로 천거되었고, 1859년 향시(鄉試)에 급제하여 내각 중서적을 맡으면서 명지서원(明志書院)에서 가르쳤고, 카바란(噶瑪蘭, kavalan)의 양산서원(仰山書院), 망가(艋舺)의 학해서원(學海書院) 등을 운영하며 무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타이완 교육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서로는 태고소련집(太古巢聯集), 향당질(鄉黨質疑) 그리고 도한록(偷閑錄) 등이 있다. 2006년 9월 23일, 천웨이잉 선생께서 홍도사에 입사(入祀)됐는데, 타이베이 공자묘에서 1919년 마지막 모의로 선유를 입사한 이후 천웨이잉 선생은 처음으로 입사된 인물이다.



8

조상의 일을 기리는 숭성사(崇聖祠)

공자묘의 배치는 가묘(家廟) 혹은 종사(宗祠)와 비슷한 점이 있다. 숭성사 건축 면적은 5칸으로, 동·서 양쪽은 원래 창고였지만, 현재는 문물 전시실과 멀티미디어 상영실로 운영 중이다.

또한 성조전(聖祖殿)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숭성사는 중국의 수천 년을 전해져 온 종족 윤리 제도에 의거해 공자의 5대 선조를 모셨고, 그 밖에 공부자 형제, 4배(四配)의 부친과 선유 선현의 부친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다.

